Q

분야별 ▼ 시사·다큐 ▼

TV 뉴스

뉴스코너 ▼

지역뉴스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 발령…전국 단위로는 처음

™ 재난포털 ON AIR ™

'코로나19' 팬데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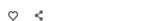
KBS NEWS

KBS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에도 효과…코로나 새 국면 맞나

입력 2021.12.23 (21:06) | 수정 2021.12.23 (22:01)

뉴스 9











코로나 중환자 89명 병상 이동… "유행 꺾이며 다음주 위중증 감…

[앵커]

먹는 코로나19치료제, 더 궁금한 점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증상이 심각해지는 걸 예방하는 효과는 탁월하다고 알려져있는데 혹시 부작용 우려는 없 을까요?

[기자]

화이자 치료제는 기존 HIV 치료제와 새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를 섞은 복합제제인데요,

HIV 치료제의 용량을 대폭 올려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비만과 심장병 등 기저질환자와 노인 등 중증 위험이 있는 확진자에게 먼저 투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도 고위험군 위주로 투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 보다 3.5%p↑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19대 보다 3.5%p↑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 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 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임상시험에서 중대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 규모의 시험이어서 수만 명 이상에게 투약 시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고지혈증약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약물 주의사항에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곧 우세종이 된다는데 오미크론, 여기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오미크론은 주로 항체가 붙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나타나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화이자 치료제는 바이러스 복제 자체를 막기 때문에 변이에 상관없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국면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기자]

신종플루는 2009년 불과 10개월간 76만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23개월간 59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죠.

하지만 사망자는 270명에 그쳤는데요,

유행이 심했던 2009년 10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비해 비축해뒀던 타미플루 250만 명분을 풀어 신종플루 확진자에게투여하면서 유행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망자도 극적으로 줄었죠.

타미플루가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펜데믹이 끝난 겁니다.

화이자 치료제도 타미플루처럼 효과가 뛰어나다면 중환자와 사망이 급격히 줄면서 사실상 펜데 믹이 끝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화이자와 머크에서 나오는 치료제가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데 두 치료제 모두 국내에 들어와 쓰이는겁니까?

[기자]

예. 둘 다 쓰입니다.

머크 치료제는 중증 예방이 30%에 불과하고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선 효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치료제는 국내에서 연내 허가 가능성이 커 내년 1월에 머크 치료제보다 먼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입 예정인 화이자 치료제가 7만 명분에 그쳐 화이자 물량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 더보기



개그맨 신동엽 코로나19 확 진…방송 줄줄이 타격



제주서 하루 4천 명 가까이 확 진…보건소 대기 행렬



경기 9만 6684명 최다 확 진…하루 10만 명대 발생 코 앞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 데"…'제주들불축제' 어쩌 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엿새째…전체 진화율 70%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목포 진주 대구 순천 전주 대전 강릉 원주 제주 청주 충주 춘처

뉴스 아카이브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